

● 5월 봄날의 '광주극장' 나들이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광주극장이 다채로운 영화 한마당을 펼쳐낸다. 먼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존 카사베츠X지나 롤랜즈' 특별전이다. 감독뿐 아니라 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했던 존 카사베츠는 뉴욕에서 연극과 연기를 공부했으며 적은 제작비로 소수의 스태프와 함께 하는 제작 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영화 세계를 만들어냈다.



'얼굴들' 스틸컷

미국 독립영화 상징 '존 카사베츠' 만난다

압도적 카리스마 '존 카사베츠X지나 롤랜즈' 특별전 낸 골딘·차이콥스키 등 실존인물 삶 다룬 작품까지

특히 배우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메소드 액팅'과는 또다른 스타일의 사실적인 연기 연출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한 캐릭터가 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스크린에 담아냈다.

카사베츠 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지나 롤랜즈다. 섬세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동시에 연기했던 롤랜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선보이며 카사베츠의 세계에 생동감과 깊이를 더한다.

광주극장은 미국 독립영화의 상징이자 '배우들의 배우'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부부이자 평생의 미학적 동지로 지난 이들의 가장 빛났던 작품들을 선보인다.

강렬한 클로즈업으로 인물의 감정 변화를 숨김없이 전달하며 미국 중산

층으로 그려지는 이들의 갈등과 분열을 생생하게 드러낸 '얼굴들'(1968)을 비롯해 아내의 신경쇠약을 지켜보며 요양원에 보낼 결심을 하게 되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스토리를 담은 '영향 아래의 여자'(1974), 젊은 여성팬의 죽음을 목도한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현실과 무대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프닝 나이트'(1977) 등이 관객들과 만난다.

특별전 상영작 이외로 실존인물 그리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도 잇따라 상영된다.

먼저, 지난 4일 개봉한 '차이콥스키의 아내'는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아내 안토니나의 과격적 사랑을 대담하고 스타일리시한 연출로 그린 멜로드라마다. 두 사람이 생전 남긴 각종 문서들과 일기, 서신들을 바탕

으로 제작됐다. 19세기 러시아 특유의 클래식한 분위기, 차이콥스키의 낭만주의 음악, 연극적 요소가 가미된 곡예적인 카메라 워킹 등이 결합돼 마치 유럽의 명화 한 점을 보고 있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같은 날 개봉한 '힙노시스: LP 커버의 전설'은 핑크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폴 매카트니 등 세계 최고 뮤지션들의 앨범 커버를 만들며 록음악의 역사를 바꾼 전설적인 디자인 스튜디오 '힙노시스'의 모든 것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반들의 뒷이야기와 대표곡을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다. '힙노시스'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콜린 퍼스가 이 영화를 제작했다. 영국의 저명한 음악 잡지 NME 사진 작가로 활약했으며 플드플레이 뮤직 비디오 연출, 아트 디렉터로도 활약한 안톤 코르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전설적인 사진작가 낸 골딘이 전하는 자신의 삶, 예술, 투쟁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

태'가 오는 15일 스크린에 오른다. 동시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손꼽히는 낸 골딘은 사진을 통해 LGBT 커뮤니티, 에이즈, 약물 중독 등 끊임없이 사회적 금기와 직면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할 줄 아는 유명 예술가의 모습에서 출발해, 그가 어떻게 미술 세계에 발을 들였고, 그의 작품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생존과 투쟁으로 가득했던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

16일에는 1980년 5월24일 광주 송암동, 효천역 일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실체와 배후를 추적하는 논픽션시네마가 개봉한다. '송암동 민간인 학살'의 타임라인을 조금 더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재연해 당시 사건이 어디 서부터 잘못돼 벌어졌는지 심층적으로 추적한다. 또 은폐된 학살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 실증하는 데 주력하며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

상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를 확인하면 된다. 문화 062-224-5858. /최명진기자

달의 크레이터, 들여다볼까

국립광주과학관 5월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

국립광주과학관이 밤하늘의 아름다운 달과 별을 관측할 수 있는 5월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별빛학교'는 광주과학관 별빛천문대에서 대형망원경을 포함한 고성능천체망원경을 활용해 체험중심의 천체관측을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는 10일 운영한다. 밤하늘을 옮겨놓은 듯한 천체투영관에서 별자리를 찾아보고, 직경 12m 거울을 가진 반사망원경으로 달의 크레이터를 관측해 볼 수 있다. 크레이터는 달표면에 보이는 원형 구덩이를 의미하며, 주로 운석 충돌에 의해 형성된다.

17일에는 천체망원경에 대해 배우고 망원경을 사용해보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밤하늘 관측대장'이 진행된다. 참가자는 천체망원경을 설치하고 망원경을 자유롭게 조작하며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



를 이용해 천체를 촬영하고 사진을 인쇄해 추억으로 담아갈 수 있다.

한편 별빛천문대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은 매달 운영되며, 천문교육과 특별 천문행사를 포함한 2024 별빛천문대 연간 운영 일정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상무대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ACC 아시아컬처마켓과 연계해 어린이문화원 앞 광장에서 군악대 공연을 선보였다. <ACC재단 제공>

문화기관·軍 함께한 가족 문화축제 '성료'

ACC재단-상무대 가정의 달 교류행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과 상무대가 상호 협력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ACC재단은 지난 3일 장성군 상무대에서 열린 통합 부대개방행사에 참여해 어린이·가족을 위한 미술 공연을 선보였다. 상무대 전 장병과 가족, 지역민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군 장비 전시회 및 탑승 체험, 공연 등을 즐겼다.

이어 상무대는 어린이날인 5월5일 ACC 아시아컬처마켓과 연계해 어린이문화원 앞 광장에서 군악대 공연을 선보이며 전당을 방문한 가족 단위 관

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협력행사는 지난해 5월 ACC재단과 상무대 5개 학교가 체결한 문화예술 향유 여건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관련 교류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선욱 ACC재단 사장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군 장병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적극 소통하고 교류하며, 문화로 하나 되는 긍정적 영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강석우, 삶이라는 꽃 28일 광주예당 11시 음악산책

삶이라는 꽃을 피워가는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가 시와 선율에 담겨 전해진다.

일상에 여유를 선사하는 광주예술의전당 11시 음악산책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소극장에서 '강석우, 삶이라는 꽃'을 주제로 열린다.

5월 음악산책을 함께할 주인공은 46년 동안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사랑 받아온 배우 강석우다.

그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CBS라디오 음악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DJ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의 장벽을 낮추고 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해왔다.



이번 무대에서 강석우는 배우가 아닌 작곡가로 선다. 그가 직접 작사·작

곡한 가곡 '4월의 숲속', '이별의 시간', '밤눈', '그리움조차', '가을 그리고 겨울', '내 마음은 왠지' 등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그의 가곡 사랑에 뜻을 같이하며 기뻐투합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 유연한 감성을 지닌 소프라노 강혜정, 따뜻하고 감미로운 바리톤 송기창이 창작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CMYK